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지역 K대학교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중심으로-

구지은 · 박형준**

(신언중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 2.1.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 2.2.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원인 이해를 위한 질적 접근
3. 외국인 유학생 이탈에 관한 당사자 심층면담과 분석
 - 3.1. 심층면담 설계와 절차
 - 3.2. 심층면담 분석 결과
4.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 4.1. 유학원 평가 기준 개선과 체계적 관리
 - 4.2. 학문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 and 현실적인 노동 정책
 - 4.3.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필요
5. 결론

*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2021년도 제4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제 1저자와 교신저자가 공동으로 수정 · 보완한 글임.

** 제 1저자 : 구지은, 교신저자 : 박형준

Ⅰ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문제를 ‘유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내 4년제 대학을 비롯하여 전문대학까지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의 정원과 재정을 충당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베트남 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한국어교육센터와 대학의 학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이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당사자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과 노동을 병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도이탈 문제의 당사자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중도이탈’이라는 현상과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심층면담 결과,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은 한국 유학 과정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인식, 유학생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인식, 어학연수생의 중도이탈에 대한 인식,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질적 연구, 베트남 유학생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질적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부산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으나, 최근 1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1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152,281명에 이르며 국적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교육부, 2021.4.1. 기준 집계). 중국 유학생은 2017년 68,184명에서 2021년 67,348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베트남 유학생은 2017년 14,614명에서 2021년

35,84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유학생의 23.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부산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은 아직 중국이 4,54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2,617명), 우즈베키스탄(558명), 몽골(259명), 일본(213명)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두 국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강은영 2021: 19). 특히,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지방 4년제 사립대학 혹은 2, 3년제 전문대학에 집중되어 있다.²⁾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많은 수의 지역 대학이 학생 정원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내 대학 입학자원이 크게 줄었고, 이는 지역 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민경(2012: 182)은 이러한 사회 변화와 대학의 위기 대응 전략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수도권 바깥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 대학들은 베트남 유학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한국어연수과정과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을 운영해가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지역 대학 내부의 국제화를 견인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어려움과 이탈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³⁾ 그래서 중소도시 지역의 일부 대학은 유학생들의 '불법체류'⁴⁾를 양산하는 곳이라는 인식

1) 강은영·정재연·채준원(2021: 19)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중국 국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중국은 감소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및 몽골 등의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2021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출처: 교육부, 2021)

3)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불법체류외국인은 391,471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19.8%에 이르고 있다. 2011년의 12.0%에 비하면 짧은 기간 급격한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 및 어학연수 비자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으로 2015년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국정감사(2020)에서 발표된 국가별 유학생 및 어학 비자 불법체류 통계에서 베트남 국적이 전체 국적에서 가장 높았다(출처: 서울시정일보 <http://www.msnews.co.kr>).

4)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용어는 불법체류자, 미등록외국인, 미

을 주기도 한다.

지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과 학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학문 목적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지 못해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불가능해진다. 넷째, 지역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학생 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 안정적인 학사관리와 재원 확보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최용선 2019: 1).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중도이탈’과 ‘불법체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어학연수생’이며,⁵⁾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유학생 군(群)은 베트남 어학연수생이다. 언론보도와 정부기관 보고서에 따르면,⁶⁾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자 주변 농촌이나 공장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될 뿐 ‘유학생 당사자’의 처지와 입장에 주목한 취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은재 · 최현미 2016: 146).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지역의 사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의 근본 원인을 ‘유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⁷⁾ 이

등록체류자, 불법이민자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5) 외국인 유학생은 학사, 석사, 박사 등 대학교의 정규 과정의 유학생(D-2)과 대학 부설 어학당 한국어연수 과정 유학생(D-4)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심층면담 대상으로 삼은 유학생, 즉 어학연수생은 D-4 과정의 한국어연수과정 유학생을 말한다.
- 6) 경복일보(2021-10-19), 조선일보(2022-9-28), 한국대학신문(2022-9-28) 보도와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2018~2021)’에 따르면, 2021년 말 유학을 중도 포기한 불법체류외국인은 6,947명이다. 2018년 대비 지난해는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자는 4,531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001명(14.4%), 몽골 488명(7.02%), 중국은 292명(4.2%) 순이다.
- 7) 박형준(2021: 57-58)은 다문화 연구에서도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 연구에서 당사자 관점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문화 당사자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당사자 연구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심층면담 기법을 활용하여 유학생 당사자의 경험과 입장을 청취하고 정리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부산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K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으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지역 대학의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중도이탈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의 입국 동기, 경비 문제, 학업 상황, 중도이탈, 불법체류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경험과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질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베트남 유학생의 이탈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2.1.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의 관련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문제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접근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과 학업 적응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영·안현선(2021)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 관련 연구 67편을 연구자의 전공, 학회지, 연구주제 및 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최근 10년간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 관련 연구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연구의 방

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각자에게 부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결정 과정”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향과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윤새은임(2019)은 심층면담을 통해 수도권 P대학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유학 동기와 현재 대학 생활의 의미를 분석했다. 베트남 유학생들이 취업과 사회적 성공을 위한 ‘스펙 쌓기’를 목적으로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며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목적과 동기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과 불법체류 문제를 분석한 연구 성과이다.

대표적으로 바트췁게르 투맹템베렐 · 김도혜(202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유학생의 불법노동을 줄이려는 일련의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허가 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유학생의 불법노동이 지속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제 유학생들이 미허가 상태에서 노동을 행하는 경험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유학 비자를 불법노동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불법의 영역에 놓인 유학생 이주자들이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로는 최용선(2019)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경남 진해 지역의 경우 베트남 유학생의 이탈률이 높아 학업 분위기 조성이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과 유학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대학 평가 및 검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첫 번째 검토한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에 관한 연구가 다수였다. 반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 즉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 권리, 이탈, 불법체류 등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 대학

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연구 역시 지속적, 다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접근/연구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2.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 원인 이해를 위한 질적 접근

외국인 유학생,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 현장을 이해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 방법으로 양적 연구가 있다. 다문화 현장의 실태를 계량적 자료로 수치화하고 유형화하는 조사 연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을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만, 양적 접근 방식은 피조사자의 일상 경험과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질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박형준 2021: 59).

실제로 최근 다문화 혹은 다문화교육 현장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윤경·박선운(2021)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교육 관련 다문화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유아 관련 다문화교육 연구물을 분석한 연구에서 질적 연구가 전체 연구물의 약 1/3 또는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질적 연구가 다문화 현장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박윤경·박선운(2021: 43)에 따르면, 틸만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연구(culturally sensitive research, CSR)’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소수자 집단과 관련된 교육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 구성원들의 삶과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질적 연구가 이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다양한 문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치, 경제, 교육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상황을 탐색하고 연

구하는 데 있어서 질적 연구 방법이 유의미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질적 연구 방법은 해석학적 입장에 근간하고 있는데, 이때 ‘해석’은 텍스트를 생성해 낸 저자의 정신적 과정을 체험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의 이야기가 연구자의 질문과 연구주제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서술 과정이라면 참여자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해석의 과정인 것이다(유기웅 외 2012: 28-29).

Creswell(2013)은 전통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사례연구,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등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유기웅 외 2012: 48), 이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말 그대로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현상’을 강조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식 속에 가장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직관적인 체험에 주목한다는 뜻한다(유기웅 외 2012: 60).

기존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르면, 경험과 인식 당사자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를 식별하고 그 의미를 분석 및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면담, 인터뷰, 참여관찰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세부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층면담’을 통해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중도이탈 문제를 고찰하고 분석해 볼 것이다.⁸⁾

김중수(2021: 77-78)에 따르면,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연구 참여자의 기억 속에 있던 어떤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기억과 경험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면담 속에서 재구성될 때에 그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심층면담에 입각한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로 체계화해서 정리했다.

8) 이 논고의 제1저자는 한국어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부족하지만,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학생들의 변화를 경험해 오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유학생의 입장, 태도, 중도이탈 과정 등에 주목하게 되었고,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면담을 통해 ‘유학생의 중도이탈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첫째,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기술한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을 나열하여 목록을 만든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을 의미 단위 또는 주제로 범주화한다. 넷째, 의미 단위 또는 주제를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경험을 문맥적으로 기술한다. 다섯째, 현상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구조적으로 기술한다. 여섯째, 경험의 의미에 대해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종합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한다(김중수 2021: 77).

이 여섯 단계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는 베트남 유학생의 심층면담 설계와 분석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 논고에서는 김중수의 ‘현상학적 분석 단계’를 참고하여 이 연구의 대상과 내용에 맞게 ‘현상학적 분석 단계’를 일부 재구성하여 심층면담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밝혀둔다.

다음 장에서는 베트남 유학생의 심층면접 설계 방법과 절차, 분석 결과를 차례대로 정리해서 제시할 것이며, 4장에서는 3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할 것이다.

3. 외국인 유학생 이탈에 관한 당사자 심층면담과 분석

3.1. 심층면담 설계와 절차

이 연구는 부산지역 K사립대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유학생들의 국적 분포도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크게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산지역 K대학의 한국어연수과정에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더니, 점차 강의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후,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어 수업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이탈’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는 ‘도망간다’ 혹은 ‘여행간다’라는 은어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베트남 어학연수 학생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연

스럽게 받아들여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교수자나 외부자의 관점에서 관찰하기보다 내부자 혹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학 당사자들과의 심층면담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지역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의 문제를 심층면담을 통해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베트남 유학생들은 중도이탈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베트남 유학생들의 중도이탈에 대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을 통해 베트남 유학생들의 이탈 실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 문제 2]를 통해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학사지원 및 체류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참여자 선정 과정과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 심층면담 대상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1년 이상 생활해 온 베트남 유학생 5명을 선정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정도 적응 정도를 고려한 것이다. 1년 이상 거주와 학업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1년간의 유학 생활을 바탕으로 베트남 유학생 집단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역 없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본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대학의 한국어연수과정에서 ‘중도이탈’하지 않고 남아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입국한 동기와 목적(학문 목적 또는 노동 목적)에 따라 중도이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심층면담 때 거부감이 없도록 연구자가 지도했던 학생이거나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 본인의 ‘참여 의사’가 있는 유학생을 선정하고자 했으

며, 면담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명은 어느 정도의 친밀감과 신뢰 관계가 이루어져 ‘교사-학생’, ‘학생-학생’의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었다. 연구 참여자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학생	성별	한국어 수준 (교육원 분반 기준)	유학 기간 ⁹⁾
A	여	5급	1년 4개월
B	여	5급	1년 4개월
C	여	4급	1년 4개월
D	남	5급	1년 4개월
E	남	4급	1년

본 연구의 과정은 첫째, 연구의 주제를 정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 기준을 선정하여 사전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전 면담 시 간단히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했다. 둘째, 면담을 위해 연구 대상자 설명서와 연구 대상자 동의서를 준비하였으며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셋째, 면담 시작 전 참여자에게 연구 대상자 설명서를 통해 면담의 목적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을 보장할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여자 모두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연구 대상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구체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1년 11월 26일에 진행하였으며, 5명 모두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 후 녹음 자료를 전사하였고, 추가 질문을 준비하여 2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2차 면담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루어졌고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 진행하였다. 넷째, 전사한 자료를 유형화하여 분류한 후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해 분석하였다.

9) 참여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진 시기는 2021년 11월 기준이다.

3.2. 심층면담 분석 결과

2.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심층면담 절차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여섯 단계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재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첫 번째,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녹음된 음성 파일 전체를 전사하였다. 두 번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주어진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전사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며 심층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전사한 자료는 기초적인 분석 절차를 거쳐 의미 있는 진술을 묶어 유형화하였다. 네 번째, 연구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단위의 구분을 진행하기 위해 전사된 내용 전체에서 유의미한 단어와 문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찾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제에 맞는 의미 단위로 도출하였다. 다섯 번째, 참여자의 일상 표현을 연구 중인 현상에 중점을 둔 학문적 언어로 변형하였다. 여섯 번째, 참여자들로부터 도출된 의미 단위를 범주화하고 구조적,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결과 유학 비용과 지역, 노동, 중도이탈, 대학 생활과 한국어 공부 등 네 가지 범주로 유학생 이탈에 대한 인식과 현상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미를 바탕으로 심층면담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하나의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심층면담과 분석 결과, 부산지역 K대학교의 한국어연수과정 당사자들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한국 유학의 과정(지역 선택)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인식, 둘째, 유학생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인식, 셋째, 어학연수생의 중도이탈에 대한 인식, 넷째, 거주 대학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면담 자료 네 가지 유형마다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표 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과 ‘중도이탈’에 대한 경험과 인식

1. 유학 비용의 부담과 지역 선택의 비자발성	한국에 오기 위해 들인 학비 및 비용
	부산지역 선택의 비자발성
2. 학생 신분 노동의 불법성과 필요성	한국 생활을 위한 노동의 부득이함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한국 생활과 노동에 대한 만족도
3. 중도이탈의 경계에 놓여 있는 어학연수생	이탈한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
	이탈하는 이유
	남아있는 학생들의 이탈 가능성
	불법체류에 대한 인식
4. 한국어 학습의 중도이탈 영향	한국어 학습의 중도이탈 영향

베트남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과 중도이탈에 대한 인식은 크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기술 및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2.1. 유학 비용의 부담과 지역 선택의 비자발성

심층면담 결과,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들인 비용과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유학생은 한국에 오기 위해 학비 외에 많은 비용을 감당하여야 한다. 이는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이 발생하는 핵심 사유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유학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 돈을 빌려서 오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심층면담 전사자료를 보자.

연구자) 한국에 오게 된 과정(경로)은 어때요? 우리 대학교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학생A) 유학센터에서 소개해 줘서 알았어요. 하노이에 있는 유학센터를 통해서 왔어요. **유학센터라고.

연구자) 유학센터에 돈을 냈어요?

학생A) 한국에 오기 위한 서류 준비 비용을 내야 돼요. 천오백만 원? 천 만 원 정도 들어요. 학비하고 서류 준비 비용이고, 그 외에도 통장 잔고 증명도 해야 돼요.

연구자) 그 돈은 어떻게 준비했어요?

학생A) 집에서 부모님이 주셨어요.(다 같이 동의)

연구자) 부모님이 부담이 많이 되시겠네요?

학생A) 그래서 도망가는 학생이 많아요. 어떤 학생은 빌려서 왔기 때문에 돈이 갚아야 해서 도망가요. 유학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올 수 있지만 서류 준비가 힘들어서 대부분 유학센터를 통해서 와요.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 대출하였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학당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만으로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이런 이유가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을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다음으로, 베트남 유학생 자신이 한국어연수를 하는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것도 ‘중도이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연구자)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부산에 왔어요?

학생E) 원래는 유학센터에 따라서 지역이 정해지고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빨리 가야하니까 어느 지역이니까 상관없어요.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탈의 문제를 내장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는 경우가 많다.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된 이유가 본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유학센터가 지정해 주는 지역의 학교에 오게 된다고 한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어학연수를 받는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최대한 빨리 입국하는 것이 중요할 뿐, 지역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 지역에서 학문 목적 어학연수를 이어가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을 위해 지역을 변경해 이탈하는

요인이 된다.

3.2.2. 학생 신분 노동의 불법성과 필요성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두 번째 핵심 원인은 학생 신분의 ‘노동’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다수의 유학생들이 불법 노동의 상황에 처해 있다.¹⁰⁾ 이 경우 다시 세 가지 세부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 유학생은 대부분 법적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도이탈을 하지 않은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공부하며 노동하는 현실이 힘들지만 만족한다는 모순적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아래의 심층면담 프로토콜을 보자.

연구자) 보통 몇 시간 일해요?

학생C) 저는 5시간, 학생B) 6시간, 학생A) 저는 4~6시간, 학생D) 7시간, 학생E) 평일에 7시간, 주말에 10시간 해요.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20시간이지만 대부분 불법이에요. 신청도 안 하고 일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어요.

외국인 유학생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근로 시간은 1주일에 20시간이다. 하지만 다수의 유학생은 그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유학 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이런 유학 환경과 노동 조건이 중도이탈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자) 지금 어디에서 일해요?

학생C) 저는 치킨 피자 가게,

학생B) 배달 떡볶이

학생A) 불고기 식당

10) 임석준(2010: 8)은 외국인의 유학 생활이 전형적인 저소득-고소비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경우 부모들의 기본 연봉이 아직까지 한국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유학생이 공부에만 전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았다. 중국 유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동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D) ○○치킨

학생E) ○○식당(돼지고기)

연구자) 보통 학생들은 어디서 알바해요?

학생B) 가까운 곳에서 알바해요.

학생A) 방학 때는 시골에서 알바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시골에서 일해요. 지금은 그 일은 안 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안 해요.

심층면담 결과, 유학생들이 일을 하는 곳은 대체로 식당이 많으며, 아예 중도이탈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장에 취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신분이지만 더 많은 노동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 처음 오게 되면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시골의 농사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농촌에서는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베트남 유학생들은 이런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모순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것은 '당사자의 관점'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연구자) 한국생활은 만족해요?

모두) 만족해요.

학생A) 베트남에서도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해요. 근데 큰돈을 받을 수 없어요. 큰 도시에서는 방값만 해도 비싸요. 힘들지 않아요.

전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지금 유학 생활에 만족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¹¹⁾ 이런 문제에 대하여 바트챙게르 투맹뎀베렐·김도혜(2020: 30)는 최근 학생 이주의 방향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

11) 노동에 대한 인식과 한국 생활에 대한 질문에서, 일하고 학교에 오면 힘들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힘들다고 대답하였다.

존의 유학생 노동 및 취업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¹²⁾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을 한국 정부에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2.3. 중도이탈의 경계에 놓여 있는 어학연수생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유학생 중도이탈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현상이 있다.

첫째, 유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유학생의 중도이탈 현상은 매우 일상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도망간 친구가 있어요?

학생C) 선생님,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도망갔어요.

학생A) 저는 두 친구하고 여기 같이 온 친구는 두 명 갔어요. 한 명은 벌써 갔고 한 명은 대학교에 갔는데 도망갈 예정이에요. 친구도 공부하기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해요.

학생B) 2명 있어요. 같이 사는 친구가 도망갔어요.

연구자) 연락해요?

학생B) 지금은 연락 안 해요. 학생A) 저는 연락해요. 베트남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가끔 연락하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하고 있어요.

연구자) 도망간 친구 중에 연락하고 있는 학생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학생A) 네,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대충 어디인지 알아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을 거 같아요.

베트남 어학연수생들 역시 자기 친구들의 중도이탈이 크게 증가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어학당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중 많은 수가 학교를 이탈했으며, 지금도 이탈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은 학생은 어학당에서 중도

12) 바트첵게르 투맹렘베렐·김도혜(2020: 30)는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노동 경험 및 사례를 이야기하며 “교육으로 증개된 노동 이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탈한 친구와 연락할 수 있으며, 그 친구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대강 파악하고 있다.

둘째, 베트남 유학생의 이탈 요인이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위의 자료에는 흥미로운 면담 결과가 있다. 베트남 유학생들이 이탈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여학생의 경우 남자친구가 이탈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 도망간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학생A)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베트남 경제와 관련된 이유, 두 번째는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같이 도망가요. 처음부터 도망갈 예정이 있던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도망갈 예정이 없던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도망가면 같이 가요.

(…중략…)

연구자) 학생들이 도망가면 분위기가 어때요?

학생A) 친한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아니면 괜찮은 거 같아요.

학생B) 상관없어요.

학생A) 좋은 친구들인데 도망가면 영향 좀 받아요. 자주 반이 바뀌어서 좋아요. 학생E) 저는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학생C) 친구가 도망가면 마음이 흔들려요. 나도 돈이 없는데 도망갈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학생A) 제 생각에 알바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알바를 잘 찾으면 괜찮아요. 상황이 너무 힘들면 도망가고 싶어요.

학생A) ○○은 정말 가까운 학생이에요. 진짜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에요. 학생B) ○○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와 같이 도망갔어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어학당에서 중도이탈할 생각이 없었던 여학생도 남자친구가 학교를 이탈하면 같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유학생들은 중도이탈에 대해 서로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심층면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유학생이 학교를 이탈해도 학습 분위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까이 지내던 이성 친구가 이탈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셋째, 문제는 입국 전부터 대학에서 중도이탈할 계획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실제로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바로 이탈하거나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학생도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하고 오는 학생들은 많아요?

학생C, 학생A) 네, 많아요. 코로나 격리가 끝나자마자 도망가는 학생도 있어요.

학생E) 공항에 내리자마자 도망가는 학생도 있어요. 바로 다른 나라로 가는 학생도 봤어요.

연구자)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A) 네, 많아요. 한 40% 정도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30% 정도…….

학생E) 선생님, 우리 학교는 적은 편이에요. **대학교는 너무 도망 많이 가서 베트남 학생을 받지 않아요.

유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30~40%가 중도이탈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지역 대학에서도 베트남 학생들을 받아들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대학본부와 유학생들 스스로도 하고 있다. 그래서 어학연수생 역시 입학 면접 후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학 사정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유학생들도 인지하고 있었다.

넷째, 면담 대상자들은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한국 유학의 동기와 목적이 학문 목적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다.

연구자) 혹시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학생A) 저는 있어요. 학생B) 저는 없어요. 학생C) 저는 있었어요.

학생D) 저는 많이 흔들렸어요. 힘든 일이 많이 생겼을 때 도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연구자) 보통 언제 도망 많이 가고 싶어요?

학생D) 일이 끝난 후에 도망가고 싶어요. 퇴근한 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 도망가면 안 힘들어요?

학생A) 힘들지만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만 하면 돼요. 퇴근하고 숙제도 하고 학교에 가고…….

학생E) 매일 학교에 갈까 말까 생각해요.

위의 면담 결과에서 보듯, 처음부터 이탈할 계획을 가지고 입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된 노동과 공부를 병행하기 힘들어지면 언제든 베트남 유학생은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제적인 것은, 어느 순간부터 어학당에서 중도이탈한 유학생과 이탈하지 않은 유학생의 신분 혹은 경계가 아주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항상 중도이탈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베트남 유학생들이 부산지역에서 중도이탈해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대전과 대구 등의 공장 지대에 취업하게 되며 농사일보다 공장에서의 노동을 더 선호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장으로의 중도이탈로 인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자) 도망간 학생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학생B) 공장에 많이 있어요. 대전, 대구, 공장 많은 곳에 있어요. 농사 일은 너무 힘들어서 공장에 많이 가요. 공장을 더 많이 좋아해요.

(…중략…)

연구자) 한국에서 도망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학생A) 일본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좀 괜찮아요. 도망간 친구들이 오히려 편안해 보여요.

학생C) 괜찮아요. 안전해요. 길에 다녀도 경찰도 잡지 않아요. 그냥 다녀도 상관없어요.

학생A) 위험하다면 2%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도망간 친구는 편해요.

학생D) 오히려 아는 사람 소개해 주고 좋은 일자리 소개해 주고 좋아요.

연구자) 그럼 베트남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학생A) 벌금을 내고 돌아가요. 벌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마지막 구술자료에서 보듯, 한국에서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이탈을 하더라도,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은 크게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사회는 치안이 아주 안전하며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좋으며, 향후 출국할 때는 벌금을 내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출국할 수 있어서 중도이탈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유학생 당사자들은 중도이탈의 문제를 심각하거나 위험한 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는 어학연수생이지만 언젠든 불법 중도이탈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경계에 놓여 있는 셈이다.

3.2.4. 한국어 공부의 중도이탈 영향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중도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C) 우리는 모두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연구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망가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을까?

학생B) 관상을 봐야 해요. 하하하. 의지가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하는데 어려워요.

학생A) 이거 정말 어렵네요. 사람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달라서 방법이 없어요.

연구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피해를 안 보고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학생A) 잘하는 학생들은 같은 반이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는 학생과 너무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너무 차이가 나요.

학생B)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끼리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 안 가고 싶을 거 같아요.

하지만 한국 생활과 유학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한국어 학습 의지가 중도이탈의 욕망을 이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는 존재하지만, 중도이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관련한 유학생 당사자의 인식은 매우 일상화되어 있으며,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지역 대학이 당사자의 관점에서 중도이탈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에 대한 면담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지역의 대학 혹은 어학당을 중도이탈하지 않고 남아있는 학생들도 중도이탈에 대해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지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심층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문제 2]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4.1. 유학원 평가 기준 개선과 체계적 관리

지방 사립대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유학원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현지 유학원들은 대부분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문 목적의 유학생인지 노동 목적의 유학생인지에 관계없이 모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구분 없이 입학하였을 때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자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유학생 선정 기준과 유학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용선(2019: 20-21)은 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해 유학원 평가 항목을 안정성 평가, 모집관리, 만족도, 업무협조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유학생의 이탈률과 출석률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유학원 선정 시 선발 기준을 재정립하여 이탈률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연구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망가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 학교는 면접을 까다롭게 하는데도 도망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 도망가는 이유는 가족들 이유거나 경제적인 이유예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좋은데 상관없어요.

그러나 위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학에서 면접과 평가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이 줄어드는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 대학이 안정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불법체류 비율을 4~6%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지위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학생 비자 발급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당장 유학생 수가 급감할 수 있다.

바트첵게르 투맹템베렐·김도혜(2020: 38-39)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지역 대학은 학생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이 앞장서서 학생이 ‘사라지지 않도록’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학생 선발을 책임지고 있는 유학원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지자체, 정부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성이 있다.

4.2. 학문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 and 현실적인 노동 정책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과 노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학생들과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목적과 학업 과정에 따라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자) 여러분은 모두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학생) 우리는 모두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부 안하고 싶어요. 매일 계속 공부하면 역량이 떨어져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탈 계획을 가지고 입국한 학생들이 아니라, 학문을 목적으로 하되 노동을 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노동과 학업을 동시에 하면서도 한국어 학습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정부와 대학에서는 이탈의 유혹을 배제할 수 있는 학업 분위기 조성 및 현실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국을 선택하여 학업에 임하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 대부분은 학업과 노동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3.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필요

학생들과의 심층면담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중도이탈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이탈한 후에도 위험하거나 불이익이 없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도 언제든 이탈의 유혹을 느끼고 있으며 이탈할 수 있다.¹³⁾ 처음부터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유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대학에서 중도이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한국에서 도망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학생A) 일본보다 위험하지 않아요. 좀 괜찮아요. 도망간 친구들이 오히려 편안해 보여요.

학생B) 괜찮아요.

남기범(2018: 237-244)은 한국의 불법체류 관리가 일본에 비해 적

13) 법무부에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하였다. 자진 출국 시 범칙금을 부과하며 미납 시 입국 금지, 범칙금 납부 시 입국금지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극성 측면에서 차이를 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일본 직원 1명이 불법체류 외국인 69명을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명이 1,353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당국 내부에서도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가장 기본적인 대안으로는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인력 충원을 하여 효과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정부 해당 부처의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관리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탈한 유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직면하게 되는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부분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5. 결론

지금까지 베트남 유학생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유학생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도이탈 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의 K사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불법체류의 근본 원인을 ‘유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당사자 연구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심층면담 기법을 활용하여 유학생 당사자의 경험과 입장을 청취하고 정리하여 분석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부산지역 K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중심으로 하였다. 심층면담과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연구 문제로 베트남 유학생들이 중도이탈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에 올 때 학비 외에 드는 비용이 많아 그 비용을 단순 아르바이트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이탈하게 된다. 둘째, 한국에 오게 된 동기 자체가 처음부터 노동을 위한 이탈 목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학문 목적의 학습 동기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친구들이 이탈할 경우 언제든 대학을 중도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처음부터 이탈을 목적으로 입국한 학생과 학문 목적의 동기를 가진 학생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탈한 학생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이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나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로, 베트남 유학생들의 당사자 심층면담 결과를 참조하여 유학생의 중도이탈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대학에서 유학원 선정 시 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의 목적과 학문 목적의 학생들을 어느 정도 구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문 목적의 동기를 가진 어학연수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학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안정적인 유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 결과는 심층면담 대상자를 5명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를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학생 중도이탈의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작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 정책연구의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 · 정재연 · 채준원(2021).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정책제언, 〈산업&혁신 브리프〉 10호, 19쪽.
- 김미영 · 이유아(2019). 베트남 유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탐색활동에 관한 질적연구, 〈동아연구〉 38호 (1), 41쪽~72쪽.
- 김은재 · 최현미(2016).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호 (1), 1쪽~24쪽.
- 김원영 · 안현선(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2011~2020), 〈다문화교육연구〉, 14호 (2), 55쪽~71쪽.
- 김중수(2021). 부산지역 중학교 한국어 학급 담당 국어 교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6호 (2), 77쪽
- 남기범(2018). 일본 불법체류관리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12호 (3), 237~244쪽.
- 바트첵게르 투맹텨베렐 · 김도혜(2020).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호 (2), 25쪽~52쪽.
- 박윤경 · 박선운(2021). 다문화교육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4호 (1), 39쪽~63쪽.
- 박형준(2021).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9호, 49쪽~73쪽.
- 안진우 · 이채원(2017).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베트남 유학생의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호 (3), 157쪽~177쪽.
- 유기웅 외(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28쪽, 29쪽, 48쪽, 60쪽.
- 윤새은임(2019). 수도권대학 베트남 유학생의 유학동기: 경기도 P대학을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4호 (1).
- 이민경(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호 (2), 182쪽.
- 이선미 · 김영순(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현대사회와다문화〉, 11호 (1), 25쪽~60쪽.
- 임석준(2010). 외국인노동자인가 유학생인가?, 〈21세기정치학회보〉, 20호 (3), 55쪽~77쪽.
- 최승은(202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28호(1), 143쪽~167쪽.
- 최용선(2019).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방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쪽, 20쪽, 21쪽.

필자 소개

성 명 구지은

소 속 울산 신연중학교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방천9길 19 [우편번호]44945

전자우편 kje9176@hanmail.net

성 명 박형준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길 65 [우편번호]46234

전자우편 corea@bufs.ac.kr

| Abstract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Issue of Foreign Students' Dropout of Local Collage

Gu, jie-un · Park, hyung-jun

(Sineon Middle School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the problem of foreign students dropping out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reign student' and to suggest a solution. Most of the local colleges have been covering university's quota and finances. In particular, local universities are intensively attracting Vietnamese students and are opera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s and university faculties. As a side effect of this, there are problems of foreign students' dropout of local universities. In order to diagnose the causes and solutions of these problem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Vietnamese students studying at a private university in Busan in this study. In this stud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foreign students are studying and working at the same time, we examined the dropout problem from an insider's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an in-depth interview,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s of 'dropout' and 'illegal stay' among those involved in the Korean language training course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The summary of contents is as follows: the process of the study abroad and the perception of the economic cost, labor as an international student, the dropout of language trainees, and Korean language learning.

|Key words| foreign student, drop-out, qualitative studies, Vietnamese students

투고일 2022. 10. 16 / 심사일 2022. 10. 27 / 심사완료일 2022. 11. 9

